

보행자 최우선 원칙 확립을 위한 보도(歩道) 기능 회복 및 안전 강화 제안서

I. 제안 배경 및 문제의 본질

1. 현황 및 문제의 본질 (보도 기능 훼손)

현재 서울시 보도의 상당부분은 차량 진출입의 편의를 위해 보행자가 통행해야 할 보도본체가 불필요하게 경사화되어 있음. 이는 도로법상 보행전용 공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시키고,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.

- 원칙 위반: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의 기본 이념과 보도의 평탄성을 규정한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의 기준을 위반하고 있습니다.
- 안전 위협 가중: 불필요한 경사화는 우천 및 결빙 시 미끄럼, 실족 등 보행 사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.
- 교통약자 이동권 침해: 휠체어, 유모차 등 교통약자가 보도위를 평안하게 이동할 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.

2. 제안 목적 (보행자1순위 원칙 확립)

- 1) **보도 본체의 평탄성 강제:** 차량 편의를 위한 보도의 경사화를 전면 금지 또는 제한하여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함.
- 2) **경계석 기능 회복:** 경계석의 차량침범 방지 및 배수기능을 회복하고, 차량 진출입은 별도의 안전장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통제함.

II. 개선 제안의 주요 골자 및 시행 방안

보행자 최우선 원칙/ 보도본체의 평탄성을 엄격히 확보하고,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는 구조적 개선에 초점

1. 보도 본체의 평탄성 엄격 확보 (경사화 전면 금지)

- **평탄성 확보 의무화:**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 본체의 종단 경사는 차량 진출입 편의를 위한 경사로의 일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, 불필요한 경사화를 전면 금지합니다.
- **휠체어 이동 편의 보장:** 휠체어 등 교통약자는 보도 위에서 평탄한 상태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, 차량 진입로 경사로 인해 이동 편의가 저해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합니다.

2. 경계석 높이 유지 및 차량 진입 통제 강화

- **경계석 기능 유지:** 보도와 차도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경계석의 높이(예: 20cm)를 유지하여 배수 기능(역류방지) 및 차량의 무단 침범 방지 기능을 강화합니다.
- **차량 진입 별도 처리:** 차량 진출입이 필수적인 곳에서는 보도 본체의 경사를 변형시키지 않고, 경계석 높이에 대한 단차 해소를 위해 '차량 진입용 받침대(이동식 또는 고정식)'의 설치 및 사용을 의무화합니다.
- **안전 장치 보강:** 차량 진출입 시 '보행자 우선', '일시 정지' 등을 명시하는 표지판을 보강하고, 경사가 있는 부위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을 적용합니다.

III. 개선 후 기대 효과 및 실행 계획

1. 개선후 기대 효과

- 1) 안전 강화: 보도 본체의 평탄성 확보로 미끄럼, 실족 등 보행 사고 위험 대폭 감소.
- 2) 권리 보장: 보도 위를 평탄하게 이동하는 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기본 이동권 실질적 증진.
- 3) 도시 환경: 보행자 중심의 도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보행 만족도 향상 및 도시 안전 수준 제고.

2. 단계별 실행 계획 (안)

- 1) **1단계:** 2026 상반기-시범 구역 선정 및 현장 조사 (민원 다수 발생지, 경사 심한 구간 우선)
- 2) **2단계:** 2026 하반기-시범 사업 시행 (선정 구역에 대한 경사화 구조 철거 및 받침대 설치 의무화 작업 실시)
- 3) **3단계:** 2027 전면 확대- 시범 사업 평가 및 개선안 반영 후, 관할 전체 보도로 개선 사업 확대 시행

3. 결론

본 제안은 보행자 최우선 원칙에 입각하여 도시 보도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로 사료 되는 바,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.

<첨부> 1. 경사화된 보도 (사진2) 2.차량 진입용 받침대 (사진2)